

운영난 악순환...광주 작은도서관 잇단 폐업

문태환 시의원 지적

광주지역 작은도서관이 운영난을 겪으면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의회 문태환(국·광산2)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6곳, 사립 98곳 등 104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문 닫는 도서관은 공립 2곳, 사립 82곳 등 8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새로 연 도서관에 거의 육박한 수의 도서관이 문을 닫은 셈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작은도서관은 지자체가 만든 공립 55곳, 아파트나 종교·사회시설, 개인 등이 설립한 404곳 등 459곳이 운영 중이다.

작은도서관의 폐업이 잇따르는 것은 개관을 쉽지만 운영이 힘든 탓이다. 작은도

최근 3년간 104곳 문 열고 84곳 문 닫아 40%만 市 지원 받고 지원액도 천차만별

서관은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만 확보하면 열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 특성상 수익구조가 거의 없어 인건비, 운영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광주시는 연간 10억원 안팎을 자원봉사자 활동비, 도서 및 기자재 구입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자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하는 곳도 300곳에 이르는 데다 지원액도 도서관에 따라 300만~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올해 지원금을 받은 곳은 176개소로, 전

체 40%에 그쳐 나머지 60%는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할 처지다.

작은도서관의 개폐 시간, 휴무, 프로그램 운영 등도 자원봉사자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이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구별로 최고 5배나 차이 나고, 아예 자원봉사자가 없는 곳도 서구에서만 27곳에 달했다.

또 개관 시간도 오전 10시, 오전 11시 등으로 들쭉날쭉하고, 개관일도 주 4일인 곳이 있는가 하면 주 6일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 통일성이 없다.

작은도서관은 최소 1000권의 도서를 보

유해야 개설이 가능한데 보유장서가 단 한 권도 없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순번을 정해 독서실로 운영하는 등 편법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 의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해서는 주로 도서관과의 통제함과 유용한 도서 대출 프로그램 접목, 작은도서관 지킴이 배치, 외국어 도서관 등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광주에서 최초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지역별·거점별 특성을 살리고 자립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선정, 마을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는 문화사랑방으로 특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기자 노트

‘항문 면봉검사’ 아무렇지 않다고요?



김한영 사회부 기자

외식업에 종사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식업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수백명, 연간 10만여명이 보건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아우성이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우선 보건소에 가 1500원의 접수비를 낸다.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플라스틱 튜브에 담긴 14cm짜리 면봉을 받은 다음 바로 옆 화장실로 들어간다. 자신의 항문에 면봉을 3~4cm정도 삽입 후 서너 차례 돌린 뒤 꺼내 튜브통에 다시 넣는다. 화장실을 나와 임상병리실에 튜브통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른 검사대상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이

포개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대상자 사이에 선 면봉이 수돗물만 적셔 제출하는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을 미리 발견해 예방하는 ‘검사 목적’ 자체가 상실된 것이다.

광주일보가 이런 내용을 지적(7월 10·11일자 6면)하자 광주시는 지난 7월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시실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일부 공무원은 “꼭 시설을 확충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광주시

의 대응이 꼭 그렇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외식업은 매일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탓에 단체활동도 어렵고, 억울해도 시간이 없어 항문의 염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꼭 표심으러라도 (우리의) 뜻을 전하겠다”며 면봉을 터트리 고 있다.

일부 외식업 종사자들은 매달 1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도 “수치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개선 자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회원 민원을 묵살한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의 해명이다.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고, 위생검사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 회원의 고통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외면하는 이유를 알 법한 대목이다.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역시 외식업 여성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의 사업과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YWCA는 “사정을 잘 몰라 단체에서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광주 여성을 위해 추구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잘 알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성매매 추방하자”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성매매 추방주간(19일~25일) 기념 캠페인 ‘성구매 추방하GO, 광주인권 살리GO’ 행사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대 국회서 반드시 군소음법 제정해야”

광주 광산구 등 군비행장 인근 12개 시군구 촉구

광주시 광산구 등이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19일 경기도 평택시 평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시군구 부서장 회의를 열고 국회에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광산구와 평택시·대구 동구·충주·홍천·예천·수원·군산·서산·포천·철원·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공동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은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 흥인속한미협력사업단장은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는 군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24% 올라 시급 9370원

전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7530원)보다 24.4% 많은 937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남도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292명에서 400명으로 108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유광중

사업본부장 이순남씨 임명

광주도시공사는 19일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에 각각 유광중(66) 전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과 이순남(59) 전 광주도시철도본부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오는 22일 취임한다.

유 본부장은 광주시의회 의사담당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3년간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이 본부장은 도시계획과장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등을 지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꿈사다리 어학교실’ 오늘 시작

농산어촌 학생 외국어 향상

전남도가 농산어촌 학생 등 전남지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꿈사다리 온라인 어학교실’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꿈사다리 온라인 어학교실’은 전남도가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인 ‘101LAB(일공일랩)’으로부터 총 120억 원 상당의 학습권을 기부받아 1년간 무료로 온라인 외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전남도와 101LAB, 전남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합동으로 사업을 홍보해 1차로 모집한 2893명에 대해 무료교육을 한다.

학습자는 ‘꿈사다리 온라인 어학교실’ 누리집(www.101campus.co.kr/

in)에 접속해 가입 당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학습 기간은 9월 20일부터 1년 간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외국어 교육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다문화·다자녀·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해 꿈사다리를 놓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엔 선정된 1차 학습자 중 저소득층 자녀와, 여수 거문초등학교 등도·서도분교, 완도 노화중학교 남도분교 등 도서·벽지의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학교 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